

#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 노동 및 직무 소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은숙, 고정훈\*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Job Exhaustion of Art Psychology Counselors on Life Satisfaction

EunSook Lee, JeongHoon K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 노동, 직무 소진,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OO시 예술 심리 상담사 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 노동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표면 행동은 부적(-)으로 내면 행동은 정적(+)으로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심리 상담사의 직무 소진의 하위 요인인 감정 고갈, 자아 성취감 저하 요인은 삶의 만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 노동의 표면 행동이 낮을수록, 내면 행동이 높을수록, 직무 소진의 감정고갈, 자아 성취감 저하 요인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예술 심리 상담사의 심리적 소진 감소와 교직 적응 탄력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job burnout, and life satisfaction for art psychology counselors. The subjects were 225 art psychology counselors in OO City. As for the methods use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applied using SPSS 22.0,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emotional labor by art psychology counselors, surface behavior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while inner behavior also had a negative effect. Emotional exhaustion and a self-achievement decrease, which are sub-factors of job burnout for art psychology counselors, had a nega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the lower the surface behavior of emotional labor by an art psychology counselor, the higher the inner behavior, and the lower the emotional exhaustion of job burnout and the lower the factor of self-achievement,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measures to reduce psychological burnout in art psychology counselors and can improve resilience in adaptation to the teaching profession.

**Keywords** : Art psychological counselor, Emotional labor, Job burnout, Life satisfaction, Surface behavior

---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eongHoon K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ajangajang2@hanmail.net

Received January 6, 2021

Revised March 10, 2021

Accepted April 2, 2021

Published April 30,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산업과 의학의 발달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감정노동과 심리서비스를 통해서 오는 직무의 소진을 일으키는 직업에서 오는 한계와 문제는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담자의 감정과 상처, 심리 등을 파악하고 치료의 과정을 조력하는 예술 심리 상담사에 대한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예술 심리치료사란 '고대 사회로부터 유래하는 중요한 치료도구로서 치료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는 어떤 기법이나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 접근하는 효과보다 치료사 개인의 상담에 대한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1]. 국내연구에서는 '예술 심리치료는 매우 중요하며 미술을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내담자와 소통하며 발전해 가는 기술을 아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며 개인의 내면적 세계를 '미술 활동을 통해 이끌어내는 과정과 내면의 것을 밖으로 나오도록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한다[2].

따라서 예술 심리사의 감정노동은 서비스 근로에 해당되는 직업윤리 상 나타나는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된다. 감정노동이란 '감정을 사회적으로 교환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원으로 파악하였으며, 외적으로 보여 지는 가능한 모습이나 표정을 나타내기 위한 느낌의 관리'라고 한다. 또한 대표적인 직업에서 살펴보면 항공기 여 승무원과 레스토랑의 종사자, 추심회사의 직원 등으로 예를 들면서 항공기 근무자 여 승무원들의 직무 수행 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감정을 계획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을 통해 지금까지 노동 요소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서비스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요소가 될 것'이라고 한다[3] 또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직무 수행 시에 상호작용이 고객과 종업원의 내면적인 감정의 표출과 미 표출을 수정하거나 조절하기 위한 노력의 총체적인 합'이라고 한다[4].

위와 같이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연관된 변인으로 직무소진에 대해 살펴보면 직무소진이란 '사람들에게 관심과 집중으로 장시간 동안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지속적, 반복적인 압력의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 정서, 정신적인 피곤한 상태'이다[5]. 또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둔 상태에서 내담자에 대한 비난으로 내담자에 대한 관련된 것이 더 이상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자기평가를 말한다[6].

이와 같이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소진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이란? '내적으로 동기화 되어진 것이 행복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가활동 참여가 적극적인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에 비해 만족감이 크다'는 것이다[7]. 특히 삶의 만족이란 '스포츠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엔도르핀에 의해 야기되는 긍정적인 기분으로, 운동을 통하여 길러지는 사교성과 성취감이 우울과 긴장감을 감소시키는 것'이다[8]. 따라서 국내에서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고용 형태에서는 안정적 수입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임금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들에 비해 삶의 만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취업자 중에도 직업 유형에 따라 다르며 관리직과 사무직이 서비스 판매직, 생산직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9].

따라서 직무소진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예술 심리 상담사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 심리 상담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및 직무소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차이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 및 직무소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밝히고자 한다. 일터 영성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지만 예술 심리 상담사의 관련 변인과 직무 변인과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 직무소진,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예술 심리 상담사들의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 직무소진,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이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예술 심리 상담사의 직무소진이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00월 00일부터 2020년 00월 00일까지 00시의 예술 심리 상담사 225명을 대상으로 조

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24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225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4문항, 감정노동 12문항, 직무소진 21문항, 삶의 만족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결혼상태, 연령, 근무경력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동환[10]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표면행동 5문항, 내면행동 7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직무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김동환[10]이 사용한 직무소진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감정고갈 7문항, 비인격화 7문항, 자아성취감저하 7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예술 심리 상담사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원희[11]가 사용한 측정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감정노동의 전체 신뢰도는 .912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직무소진의 전체 신뢰도는 .946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 또한 .962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alpha$
Emotional labor	12	.912
Job exhaustion	21	.946
Life satisfaction	15	.962

##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  $\alpha$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예술 심리 상담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으며,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 직무소진, 삶의 만족과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예술 심리 상담사의 성별은 남자 59명(26.2%), 여자 166명(73.8%)으로 남자 보다 여자의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179명(79.6%)으로 미혼 46명(20.4%)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101명(44.9%)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40대가 76명(33.8%), 30대가 28명(12.4%), 20대가 20명(8.9%) 순으로 조사되었다.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119명(52.9%)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3년 미만인 54명(24.0%), 5년 이상-10년 미만 31명(13.8%), 3년 이상-5년 미만이 21명(9.3%) 순으로 확인되었다. 예술 심리 상담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oatl (N=225)	
		Frequency	Ratio(%)
Sex	Male	59	26.2
	Female	166	73.8
Marital status	Single	46	20.4
	Married	179	79.6
Age	20s	20	8.9
	30s	28	12.4
	40s	76	33.8
	Over 50s	101	44.9
Work experience	1-3 years	54	24.0
	3-5 years	21	9.3
	5-10 years	31	13.8
	Over 10 years	119	52.9

###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 3.2.1 감정노동에 대한 기술통계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감정노동 요인의 전체는 M=3.37

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감정노동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내면행동(M=3.71) 요인의 평균점수가 표면행동(M=3.03)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on emotional labor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Surface behavior	225	1.00	5.00	3.03	.94
Inner behavior	225	2.00	5.00	3.71	.62
Total	225	1.50	5.00	3.37	.68

### 3.2.2 직무소진에 대한 기술통계

예술 심리 상담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직무소진 요인의 전체는 M=2.21로 평균 점수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직무소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아성취감저하(M=1.88) 요인이 가장 낮았으며, 비인격화(M=2.25), 감정고갈(M=2.50)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 심리 상담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echnical statistics on job exhaustion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Emotional exhaustion	225	1.00	4.86	2.50	.80
Depersonalization	225	1.00	4.67	2.25	.88
Decreased self-achievement	225	1.00	4.00	1.88	.67
Total	225	1.00	4.25	2.21	.68

### 3.2.3 삶의 만족에 대한 기술통계

예술 심리 상담사의 삶의 만족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삶의 만족 요인의 전체는 M=3.96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전반적 만족(M=4.00) 요인이 주관적 만족(M=3.92), 요인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심리 상담사의 삶의 만족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life satisfaction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Overall satisfaction	225	1.83	5.00	4.00	.60
Subjective satisfaction	225	1.25	5.00	3.92	.78
Total	225	1.79	5.00	3.96	.66

##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 직무소진, 삶의 만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 요인과 직무소진 요인은 낮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206, p<.01$ ). 또한 감정노동 요인과 삶의 만족 요인도 낮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258, p<.01$ ). 반면, 직무소진 요인과 삶의 만족 요인은 다소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496, p<.01$ ).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Classification	Emotional labor	Job exhaustion	Life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1		
Job exhaustion	.206**	1	
Life satisfaction	.258**	-.496**	1

\* $p<.05$ , \*\* $p<.01$

## 3.4 감정노동, 직무소진, 삶의 만족과의 관계

### 3.4.1 감정노동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감정노동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145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14.5%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970으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 $F=18.776, p<.000$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면행동( $\beta=-.223, p<.05$ ) 요인은 삶의 만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내면행동( $\beta = .448, p > .05$ ) 요인은 삶의 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 하위요인인의 표면행동이 낮을수록 그리고 내면행동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life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Tolerance limit
		B	Standard error	$\beta$		
Life satisfaction	Constant	2.654	.251		10.566**	.719
	Surface behavior	-.158	.052	-.223	-3.051*	
	Inner behavior	.482	.079	.448	6.124**	

\* $p < .05$ , \*\* $p < .01$ , \*\*\* $p < .001$

### 3.4.2 직무소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예술 심리 상담사의 직무소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에 대한 직무소진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270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27.0%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2.027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 $F = 27.296, p < .000$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소진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감정고갈( $\beta = -.184, p < .05$ ), 자아성취감저하( $\beta = -.361, p < .001$ ) 요인은 삶의 만족에 부정(-)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비인격화( $\beta = -.037, p > .05$ ) 요인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 심리 상담사의 직무소진 하위요인인 감정고갈, 자아성취감저하 요인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 심리 상담사의 직무소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The effect of job exhaustion on life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Tolerance limit
		B	Standard error	$\beta$		
Life satisfaction	Constant	5.084	.134		37.989***	.533
	Emotional exhaustion	-.154	.066	-.184	-2.339*	
	Depersonalization	-.028	.064	-.037	-.435	
	Decreased self-achievement	-.357	.079	-.361	-4.525***	.519

\* $p < .05$ , \*\* $p < .01$ , \*\*\* $p < .001$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 직무소진,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표면행동 요인은 삶의 만족에 부정(-)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면행동 요인은 삶의 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 심리 상담사의 감정노동 하위요인인의 표면행동이 낮을수록 그리고 내면행동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예술 심리 상담사의 직무소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감정고갈, 자아성취감저하 요인은 삶의 만족에 부정(-)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비인격화 요인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 심리 상담사의 직무소진 하위요인인 감정고갈, 자아성취감저하 요인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 노동과 직무 소진의 연계성[5]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 심리 상담사의 역할 수행을 높이기 위해 삶의 만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미술 심리 상담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높은 행복을 느끼는 삶의 만족

이 개인, 내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을 느끼지 않고 일체감, 소속감, 충실성을 가지는 삶의 만족이야말로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조사지역 및 조사 대상, 방법에 한계가 있으며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본 지역, 확대와 비교 집단 간 연구로 폭넓고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 심리 상담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연구로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예술 심리 상담사를 대상으로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실천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References

- [1] Lambert, M. J. "The individual therapist's contribution to psychotherapy process and outcome",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9, No.4, pp.469-485, 1989. DOI: [https://doi.org/10.1016/0272-7358\(89\)90004-4](https://doi.org/10.1016/0272-7358(89)90004-4)
- [2] H. S. Lee, S. N. Choi, "The Influence of the Art Therapist's Therapeutic Experience,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on the Therapeutic Outcome",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17, No.1, pp.149-164, Jun. 2010. DOI: <https://doi.org/10.35594/kata.2010.17.1.008>
- [3] Hochschild, Arlie Russell, (The)managed heart :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p.307,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p.35-55
- [4] G. Kim, G. M. Han, "The Impact of Police officials' Emotional Labor 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Focused on J-Provincial Police Agency",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22, No.4, pp.497-523, 2012.
- [5] Gerald Corey, Marianne Schneider Corey, *Becoming a helper*, p.412, CA : Brooks/Cole, 2003.
- [6] J. H. Oh, C. W. Kim, H. J. Lee, "A Study on Causes, Consequences and Alleviative Factors of Burnout of National Airline Cabin Attendants", *Journal of Hotel Management*, Vol.20, No.4, pp.271-291, 2011.
- [7] Ibrahim, Hilmi, Cordes, Kathleen A, *Outdoor recreation*, p.419, Madison, Wis. : Brown & Benchmark, 1993.
- [8] Argyle, Michael, *The psychology of happiness*, p.276, London ; New York : Taylor & Francis, 2001. DOI: <https://doi.org/10.4324/9781315812212>
- [9] H. S. Lee, "Composition and Determinants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e 1st Korean Labor Panel Conference*, 1999.
- [10] D. H. Kim, *The effect that the emotional labor of officials in charge of civil appeal have on exhaustion and job attitude*, Ph.D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71-76, 2014.
- [11] W. H. Kim, *A Study on the Related Variable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 Focused on Personality Traits, Family Support, Psychological well-being*, Ph.D dissertation, Dongbang Culture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49-59, 2014.

이 은 숙(EunSook Lee)

[정회원]



- 2020년 12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 2017년 2월 1일 ~ 현재 : 가람심리상담연구소 미술·놀이상담사
- 2019년 12월 ~ 현재 : 속초시 가온누리(주간활동서비스) 이사

<관심분야>

예술심리

고 정 훈(JeongHoon Ko)

[정회원]



- 디자인학 박사
- 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 문화예술콘텐츠학과 학과장
- 뷰티예술학과 학과장

<관심분야>

콘텐츠융합디자인